

“인구소멸 시계 거꾸로”…영광군, 맞춤형 지원 통했다

합계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인구 회복 청신호

청년 정착·유입 미래 세대 맞춤형 지원 보따리 풍성

태양광·풍력발전 이익공유 ‘전군민 기본소득’ 지급 원년

영광군이 인구 감소세를 늦추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까지 성공적으로 펼쳐온 지원 정책과 지방 소멸에 대응해 민선8기 후반에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전군민 기본소득’ 지급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영광군은 최근 인구 5만2000명대를 회복하며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영광군 인구는 5만227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602명 늘었다.

영광군도 지난해 다른 지역처럼 출생아 수(380명)보다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737명)가 많았다. 하지만 전출·전입 대비 순유입 인구가 702명에 달했고 출생아 수를 더하면 전체 유입 인구(1082명)가 소멸 인구를 앞질렀다.

인구 역전 현상은 순유입 인구도 늘었으나 출산율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 2월26일 발표한 2024년 전국 합계출산율 1위 지자체는 또 영광군이었다.

이처럼 영광군 인구 회복의 원동력은 2019년부터 6년 연속 1위를 지켜온 합계출산율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영광군 합계출산율'은 1.71로 전국 평균 0.7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간 추진해 온 결혼·출산 정책을 비롯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결과로 평가받게 됐다.

가장 눈에여 볼 부분은 혼인을 증가다. 2024년 영광군 결혼 건수는 전년(177건) 대비 71건(40%) 늘어난 248건을 기록했다. 여기에 18~45세 청년인구도 113명 늘었다.

영광군은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총 42개 사업에 265억원을 투입해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보육·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첫째 아이 500만원, 둘째 아이 12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최대 3500만원까지 지급하며 산후 조리비 50만원과 출산 축하 용품비 30만원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출생 기본 수당도 지급한다.

또 임신부에게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여기에 개원을 준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광군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청년까지 확대한다.

청년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최대 2160만원의 청년 일자리 장려금과 취업 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 창업 지원, 취업자 주거비 등도 지원한다.

군은 특히 지난해 10·16세코별선거로 당선된 장세일 영광군수는 햇빛과 바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제를 통해 올해를 ‘영광형 기본소득’ 지급 원년으로 만든다는 각오다.

장세일 군수의 핵심 공약인 해당 정책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소 930곳, 풍력 발전소 8곳이 가동 중이다. 내년에는 해상풍력발전 설비 허가 용량만 4118MW(메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영광 칠산 앞바다의 공유수면과 풍부한 바람, 햇빛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막대한 발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광=서종민 기자

이상익 함평군수 ‘전국체전 성공 기원’ 동참

이상익 함평군수가 전남도에서 개최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장-군수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함평군은 8일 “이상익 함평군수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다음 단체장으로 김산 무안군수와 정인화 광양시장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챌린지는 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남도 내 경기 개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남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행사다.

함평군에서는 함평을 구룡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경기가 개최되며 4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함평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군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축전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선수단과 방문객의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대회 기간 중 개최되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홍보하며 선수단 및 방문객에게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선사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을 방문해 주시는 선수단과 응원단 여러분들이 함평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돌아가시길 바란다”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지대만 기자

해남, 독거 어르신 등 ‘안심앱’ 운영

“일정시간 휴대폰 사용없으면 주변에 문자”

해남군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등 위기 가구 보호를 위해 ‘해남군 안심앱’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해남군 안심앱은 미리 정해진 일정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정된 구호자에게 알람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서비스이다.

지정된 시간(최소 6시간)이 지나면 대상자가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도록 1차 알람 신호를 보내고, 알람 신호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핸드폰에 등록된 다수의 구호자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1인 가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온스토어에서 ‘해남군 안심앱’을 검색해 설치 후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무료이다.

특히 해남군 안심앱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모금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어르신들의 상황을 반영한 사업으로 더욱 의미를 깊게 하고 있다.

실제 안심앱을 도입한 타 지자체에서 집안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가 하면 유서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된 대상자를 찾아내 목숨을 구하는 등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완도 ‘인구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 동참

완도군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진행 중인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했으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기관·단체에서 동참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완도군이 함께 합니다”라는 선언문이 적힌 팻말을 들고 캠페인 참여를 인증했다. 완도군은 32종의 출산 장려 사업과 출생 기본 수당 지급, 두 자녀 이



상 가정의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초중고 입학 축하금 지원, 가족센터 신축 등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 신설, 출산 전 준비금 확대, 공공 산후조리원 첫째아 감면료 지원 확대 등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완도=이두식 기자

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본격 추진

숙련된 외국인 인력 지역 정착통해 인구 감소대응

진도군이 외국인의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동 촉진 등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가족과 함께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의 발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재외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R), 총 세 가지 비자 유형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한다. 먼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소득 요건,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진도군에는 20명이 배정되었고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단, 배정 인원이 모두 충족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가족과 함께 진도군으로 이주하면 발급되며, 기존의 재외동포(F-4) 비자와 비교하면 단순 노동 등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이 허용되어 취업 선택권이 크게 확대됐다.

해당 비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배정 인원의 제한 없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진도=박재영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 농가-기업 상생 계약재배 현장 찾아

시종면 ‘마늘 계약재배 시범사업’ 농가서 생육상황 점검·농민 의견 청취



것을 약속했다.

이날 농가들은 우승희 영암군수와 만나 가물 농수 공급 등 5월 수확기를 앞두고 마늘 재배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농가와 기업이 협력해 농특산물의 가격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상생 모델을 마늘 재배

농가에서 만들어주길 바란다. 성공 사례를 다른 양념 채소에도 확장해서 감장철이면 영암 양념 패키기도 만들어 판매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영암군은 마늘 계약재배 모델의 성공 정착 사례를 앞으로 양파·생강 등 다른 농산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형주 기자

광양시보건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 추진 ‘박차’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 추진

광양시보건소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를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행됐으나, 지난 4월 1일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으로 변화가 생겼다.

개정된 법에는 ▲1996년 9월 도입된 모범업소 지정 제도의 폐지 ▲2028년 7월 1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연장된 업소에 한해 유효기간이 3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상반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상수도 요금 일부 지원(하반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자 광양시 식품위생과장은 “법 개정으로 유사한 인증제도가 일원화돼 소비자의 혼란이 줄고,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양시는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식품업객업소 등에서 위생등급제 지정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순천시 새로일하기센터, 우수기관 선정·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취업지원 원스톱 서비스 구축해 전국 159개소 중 최·창업 실적 우수

순천시는 순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의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제14회 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2024년 여성새일센터 사업평가 최·창업 부문 우수 기관 및 종사자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상식은 서울 마포구에서 중앙여성새일센터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지자체, 새일센터 및 종사자, 민간기업, 우수사례공모전 당선자 등 5개 분야 표창으로 진행됐다.

전국 새일센터 159개소 중 순천새일센터가 최·창업지원 실적 우수기

관 표창, 종사자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취업지원의 연계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이다.

순천새일센터는 2009년에 개소하여 17년째 맞춤형 취업지원 기관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지난해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등 취업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담양, 평생학습동아리 모집
팀별 100만 원 내외 지원

담양군에서는 군민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배움을 통한 개인의 성장, 나눔 문화 확산, 주도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동아리를 모집한다.

평생학습동아리란 사교나 친목 모임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아 발전 및 재능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원 금액은 팀별 100만 원 내외이며 지원 항목은 강사비, 교재 및 재료비이며 담양군민으로 구성된 8명 이상의 성인, 가족 학습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동아리라면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학습공동체 문화가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전남도 1분기 재정집행

강진 ‘우수군’ 선정

강진군이 전라남도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신속집행 실적과 소비,투자부분 집행률, 목표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강진군은 그동안 꾸준한 집점과 보고회 개최를 통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집행능력을 인정받았다.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목표액 1,547억원 중 895억원을 집행해 57.85%의 집행률을 달성해 전년 대비 13.9% 초과 집행했다.

특히, 소비·투자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 전략을 펼쳐 목표 585억원 대비 734억원을 집행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예산 집행을 제고 위해 모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다.

강진군은 올해 초부터 이병철 부군수 주재로 정례적인 보고회를 열어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왔다.

지난 1~2월에는 ‘2025년 이월사업 신속집행 보고회’를 열어, 전년도 이월된 사업들의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했다. 이어 3월 한달간은 매주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 통계목별·사업별 집행 실적을 집중 점검하고, 1분기 목표 달성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벌였다. /강진=김경선 기자